

## 『文學思想』 수록 金笠 漢詩 연구

구 본 현\*

### < 目 次 >

- |                             |                               |
|-----------------------------|-------------------------------|
| I. 서론                       | III. 기존 작품과의 비교로 본<br>영물시의 특징 |
| II. 호남 배경의 작품과 김립의 만년<br>행적 | IV. 결론                        |

### < 국문 초록 >

金笠[김삿갓] 연구의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에서 비롯한다. 하나는 '김립'이라는 명칭이 金炳淵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복수의 방랑 시인을 포함하는 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곤란은 김병연과 그 작품에 대한 문헌 기록이 매우 소략하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둘째는 현전하는 김립 작품들의 진위 여부이다. '김립'이라는 명칭이 회자되기 전에 창작된 작품들이 김립의 것으로 와전된 경우가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현재 김립의 작품이라 전해지는 것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李應洙의 노력에 의한 것이다. 이응수는 김립의 작품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세 종의 시집을 간행하였다. 이후 김립의 새로운 작품이 간간히 발굴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1983년 『문학사상』 2월호에 수록된 김립의 한시 12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金笠'이라 표기된 작자를 김병연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광군수로 재직 중이던 김희명에게 준 시에는 작자가 이전부터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 mijor@dongduk.ac.kr

김희명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여기에 김희명과 김병연이 같은 안동 김씨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추정하기는 하나 이 시의 작자를 김병연이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전남 영광과 곡성 등 호남에서 지은 작품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김병연이 사망한 곳으로 알려진 전남 화순의 동북면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 만약 이 시들의 작자가 김병연이라면 김병연의 만년 행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기존에 소개된 김립의 영물시와 비교해 볼 만한 작품이 4편 수록되어 있다. 김립은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발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영물시 창작에 뛰어났는데, 『문학사상』에 수록된 영물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金笠, 김삿갓, 金炳淵, 『文學思想』, 湖南, 詠物詩

## I. 서론

김립[김삿갓] 연구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한다. 첫째는 ‘金笠’이라는 명칭이 누구를 지칭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전하는 김립의 한시가 진짜 김립에 의해 창작된 것이 맞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 김립의 정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덩달아 작품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김립’이라는 명칭은 흔히 실존 인물인 金炳淵(1807~1863)을 가리키는 것으로 쓰인다. 그러나 김병연이 김립으로 유명해진 이후에 김립이라 행세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또한 김병연과 동시대, 또는 그 이전에도 삿갓을 쓰고 방랑하며 畵行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김립’은 복수의 방랑시인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인다.<sup>1)</sup>

현전하는 김립 작품의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李應洙(1909~1964)의 노력

에 의한 것이다. 이응수는 전국 각지에서 구전된 김립의 작품을 수집·정리하여 세 종의 시집을 간행하였다.<sup>2)</sup> 그런데 여기에는 김병연의 작품뿐만 아니라 김립이라 행세한 다른 이들의 것, 김립이 유명해지자 김립의 작품이라 가탁한 것 등이 뒤섞여 있다.

이처럼 고증이 어려운 까닭에 김립과 그 작품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어찌 보면 사상누각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진행된 셈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발굴된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새로운 자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기존에 소개된 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문학사상사 자료조사연구실에서 수집하여 1983년 2월에 『문학사상』에 수록한 13편의 한시이다. 상당히 중요한 발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sup>

김립은 해학과 풍자가 두드러지는 육담과 언문풍월 같은 파격으로 유명하지만 당대에는 大古風과 科體詩, 즉 東詩를 잘 지어 명성을 얻었다. 東詩는 장편인 데다가 형식이 복잡하고 用事가 많이 쓰여 이해하기가 어렵다.<sup>4)</sup> 풍자는 가능하지만 해학은 불가능하며 관습적 표현에 얽매이는 경향이 강하다. 달리 말하면 시인의 개성적인 창작 스타일이나 독자적인 세계관이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 
- 1) '김립'이라는 명칭과 그 정체에 대해서는 임형택, 「이조 末 지식인의 문화와 戲作化 경향」,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2, pp.281-284; 심경호,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문학논집』 51, 근역한문학회, 2018, pp.9-34 참조.
  - 2) 李應洙 編註, 『詳解 金笠詩集』, 學藝社, 1939; 李應洙 編, 『大増補版 金笠詩集』, 漢城圖書株式會社, 1941; 이응수 정리,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화사, 2000.
  - 3) 정대구의 『김삿갓 연구』(문학아카데미, 1990, p.68)에서 관련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였고 시선 김삿갓 유적보존위원회에서 편찬한 『천재시인 김삿갓의 문학적 유산』(강원도 영월군, 1992)에 원문과 번역문이 다시 소개되었다. 김립에 대한 방대한 연구인 심경호의 『김삿갓 한시』(서정시학, 2018)에서도 영광군수 김희명에게 준 시만 검토하였을 뿐이다.
  - 4) 東詩의 특징에 대해서는 심경호,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동양한문학연구』 20, 동양한문학회, 2004, pp.53-69 참조.

『문학사상』에 실린 시들은 운율을 잘 지키고 對偶, 用事 등의 수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형적인 근체시에 해당한다. 김립을 유명하게 만든 파격, 해학, 풍자 등이 두드러지지 않기에 소개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학사상』 수록 한시는 ①‘김립’으로 표기된 작자가 ‘김병연’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김병연은 만년에 호남에 머무르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호남에서 지은 시가 가장 많이 전해지는데 『문학사상』 수록 한시들 또한 호남을 배경으로 창작되었다는 점, ③김병연의 詩才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되는 영물시가 여러 편 수록되어 있어서 같은 소재를 활용한 기존의 영물시와 비교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문학사상』에 수록된 작품들을 분석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작품들의 작자가 김병연이라는 가정을 수용한다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김병연의 만년 행적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며, 파격뿐만 아니라 정격의 작품에서도 김병연의 詩才와 개성이 잘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Ⅱ. 호남 배경의 작품과 김립의 만년 행적

1983년도 『문학사상』 2월호에는 「江山에 떠도는 샷갯을 혹이나 기억하 시는지」라는 제목으로 새로 발굴된 김립의 한시 13편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원문과 번역문만 활자화하여 수록하였을 뿐 원전이나 발굴 경위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문학사상사에서든 복본이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번역을 맡으신 남만성 선생님께서도 작고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 두 장의 원문 사진이 실려 있어서 약간의 도움이 된다. 사진을 보면 두루마리 형태의 종이에 필사를 한 원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김립과 관련된 방송 프로그램과 신문·잡지의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대

중적 인기가 높았던 때였으니<sup>5)</sup>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소장자가 문학사상사에 제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수록 순서대로 13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목	형 식	내 용	장소 / 시기
①	睡翁李叟共吟(2수 중 1수) 수옹이라는 호를 쓰는 이씨 노인과 함께 읊다.	칠언율시 평성 庚韻	수옹에게 준 시	호남 / 미상
②	睡翁李叟共吟(2수 중 2수) 수옹이라는 호를 쓰는 이씨 노인과 함께 읊다. <sup>6)</sup>	칠언율시 평성 東韻	수옹에게 준 시	호남 / 미상
③	東湖次蘭阜 동호에서 난고의 시에 차운하다	칠언율시 평성 東韻	②에 대한 수옹의 차운시	호남 / 미상
④	吟雪 눈을 읊다	칠언율시 평성 冬韻	영물시	미상 / 겨울
⑤	玉果大還亭韻 옥과의 대환정 운으로 짓다	칠언율시 평성 魚韻	대환정 제영 차운	곡성 / 미상
⑥	없음	칠언율시 평성 冬韻	술회시	山寺 / 겨울
⑦	謝主人設禮 감주를 차려준 주인에게 사례하다	칠언율시 평성 庚韻	①과 운이 같은 영물시	미상 / 여름
⑧	吟硯 벼루를 읊다	칠언율시 평성 蒸韻	수옹에게 준 영물시	호남 / 미상
⑨	絕句(2수 중 1수) 절구	오언절구 평성 侵韻	수옹에게 준 시	호남 / 미상
⑩	絕句(2수 중 2수) 절구	오언절구 평성 眞韻	술회시	미상 / 미상
⑪	火爐 화로	칠언율시 평성 庚韻	영물시	미상 / 겨울
⑫	贈靈光倅金會明 영광의 사또 김희명에게 드리다	칠언율시 평성 魚韻	김희명에게 준 시	영광 / 1855년
⑬	贈李叟睡翁 수옹 이씨 노인에게 주다	칠언율시 평성 先韻	수옹에게 준 시	호남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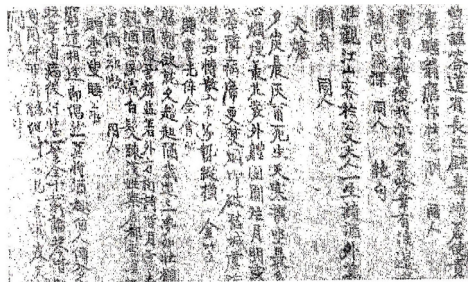
5) 김립에 대한 대중적 인기에 대해서는 하정승, 「김삿갓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징」, 『한문고전연구』 29,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pp.219-245 참조.

③은 제목이 “동호에서 난고의 운을 잇다”이므로 김립의 시가 아니다. 운자를 보면 ②를 차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睡翁’이라는 호를 쓰는 누군가가 김립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따라서 ②를 제외한 나머지 12편이 김립의 시로 보인다.

〈사진1〉의 왼쪽 하단과 〈사진2〉의 중간 하단을 보면 원문을 먼저 적고 그 뒤에 시의 작자를 ‘金笠’이라 한 것이 보인다. 사진에는 작자를 ‘同人’이라 표기한 부분도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金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③에 김병연의 호인 ‘蘭阜’가 보이므로 수옹과 관련된 작품들의 경우 작자를 김병연이라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 문제는 다른 작품들의 작자 또한 김병연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한 것이 ⑫이다.



<사진1> 『문학사상』, 1983.2, p.247.



<사진2> 『문학사상』, 1983.2, p.253.

- 6) ②는 별도의 제목이 없으나 내용으로 보건대 ①과 같은 제목이라 볼 수 있다.
- 7) 정대구는 ‘睡翁’을 ‘李叟’라고 하였으나 〈사진1〉의 왼쪽 해당 부분을 보면 ‘李叟’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대구는 13편 가운데 2편을 수옹의 작품으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 영광의 사또 김회명에게 드리다

慇懃欲就久趙趙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은근하였으나 한동안 머뭇거렸는데
隔歲迢迢一夢如	해가 바뀌도록 길었던 시간이 한바탕 꿈인 듯하네.
壯觀已經中國後	이미 중국의 장관을 경험하신 뒤이고
譽聲益著外方初	이제는 지방에서 명성을 더욱 드러내시네.
詩皆月露青眸熟	달과 이슬만 읊은 시뿐인데도 푸른 눈동자로 익숙히 맞아주셨는데
酒亦風霜白髮踈	바람과 서리 맞으면서도 술만 마시다 보니 백발이 성글어졌네.
漢姓秦名都杏漢	한나라의 성씨와 진나라의 이름 모두 아득해졌으니 <sup>8)</sup>
江山一笠倘知歎	강산을 (떠도는) 삿갓 하나를 (그 누가) 혹시나 알아 주겠는가 <sup>9)</sup>

평성 魚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就'는 친해지고 싶어 다가간다는 뜻이다.<sup>10)</sup> 김회명에게 의지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을 받아줄까 걱정하였는데, 김회명이 흔쾌히 자신을 돌봐주었다는 뜻이다. 작자 자신의 시는 달과 이슬을 읊은 것뿐이어서 겉만 그럴싸하고 실질이 없는 것인데도<sup>11)</sup> 김회명이 훌륭한 시인이라며 靑眼으로 맞이하였다고 감사하였다.

작자 자신을 가리킨 "漢姓秦名"은 진나라의 학정을 피해 은둔한 이들이 한나라가 새로 들어선 것도 몰랐다는 「桃花源記」의 내용과 연관된다.<sup>12)</sup> 세상의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떠도는 신세를 자처하였으니 자신의 이

8) 『문학사상』의 인용문에는 "杏都漢"으로 잘못되어 있다. '杏漢'은 아득하고 멀다는 뜻이다.

9) 金笠, 「贈靈光倅金會明」,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3.2, p.252.

10) 宋 秦觀, 『全宋詩』 권275, 「雷陽書事」: "峯岵托絲布, 相就通慇懃."

11) 『隋書·李諤傳』 권66: "競一韻之奇, 爭一字之巧, 連篇累牘, 不出月露之形, 積案盈箱, 唯是風雲之狀."

12) 晉 陶淵明, 『陶淵明集』 권6, 「桃花源記」: "自云: 先世避秦時亂, 率妻子邑人來此絕境, 不復出焉, 遂與外人間隔. 問今是何世, 乃不知有漢, 無論魏、晉."; 唐 王維, 『全唐詩』 권125, 「桃源行」: "樵客初傳漢姓名, 居人未改秦衣服."

름, 집안, 고향 따위를 누가 알아주겠냐는 뜻이다. 그저 강산을 집으로 삼는 삿갓으로 기억해주기만 해도 족한데, 김희명이 자신을 과분하게 대접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첫째, 김희명이 영광의 군수를 지낼 때 지었다는 것이고 둘째, 이 시의 작자가 김희명의 청나라 사행을 알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초면이지만 곧 친하게 되어 해를 넘길 때까지 의탁하였다는 것이다.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면 金會明(1804~?)은 자가 光之, 본관은 安東이다. 1837년(헌종3) 식년 진사시에 3등으로 합격하였고 1844년(헌종10) 문과 增廣試에 丙科로 합격하였다. 실록에 1847년 관록(홍문록)과 도당회권에 뽑혔다고 했으니 이후 홍문관에 재직한 듯하다. 그리고 1850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sup>13)</sup> 1851년 홍문관 교리로 있으면서 放逐된 權敦仁에게 加罪할 것과 金正禧를 섬에 유배 보낼 것을 상소하였다.<sup>14)</sup> 1852년 2월에 부응교로서 왕실 제사의 執禮로 공을 세워 加資되었다.<sup>15)</sup>

『外案考·全羅道』(권4)에 따르면 김희명이 영광군수로 부임한 것은 1854년 4월이며, 이듬해인 1855년 10월에 宋謙洙로 교체되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까닭은 “전라우도 암행어사인 成彝鎬의 書啓에 따라 전 영광군수인 김희명이 죄를 입었다”<sup>16)</sup>는 실록 기사에서 알 수 있다. 해가 바뀌었다는 시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시는 1855년(철종6)에 지어진 것이 된다.

13) 『철종실록』 권2, 1년(1850) 3월 26일: “召見陳慰進香使 正使徐左輔、副使洪義錫、書狀官金會明, 辭陛也.”

14) 『철종실록』 권3, 2년(1851) 7월 12일: “校理金會明疏略: ‘請放逐罪人權敦仁, 加施當施之律. 噫嘻! 金正禧, 卽一儉邪宵小, 平生所爲, 皆是禍人家國之事, 而祧禮之莫重莫嚴, 乃敢參涉, 設心造謀, 何如是凶且慳也? 請施島賓!’ 批曰: ‘懲討事, 已有前後批諭. 下款事, 此人之得此聲, 豈非意外乎? 然, 爾言則太過情矣.’”

15) 『철종실록』 권4, 3년(1852) 2월 26일: “健陵、顯隆園、華寧殿親祭時, 獻官以下施賞有差, 禮房承旨李晉翼, 執禮副應教金會明, 大祝副修撰洪在重, 竝加資.”

16) 『철종실록』 권9, 8년(1857) 12월 21일: “召見全羅右道暗行御史成彝鎬, 書啓罪錦山前郡守金在獻…靈光前郡守金會明.”

한편, 김희명이 청나라에 다녀온 사실이 언급된 것을 보면 이 시의 작자는 소문을 통해 김희명의 이력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특기한 것은 작자 자신이 일찍부터 김희명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인다. 김희명 또한 작자를 후대하여 해가 넘기도록 생활의 방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반겼다는 의미가 된다.

김희명은 김병연보다 세 살 위이고 본관이 안동이어서 김병연과 같은 가문 출신이 된다. 「蘭阜平生詩」에서 “선대로부터 벼슬에다 부귀까지 갖춘 집안사람들이어서 꽃과 벼들 있는 서울의 아름다운 곳에 집이 있었지(簪纓先世富貴人, 花柳長安名勝庄)”라 한 것처럼 비록 폐족이 되었으나 김병연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다. 김희명의 조부는 正言을 지낸 金秀臣이며 부친은 通政大夫 知製教를 지낸 金裕憲이다. 김병연의 집안과 마찬가지로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었던 것이다.

조선 말기에는 집안을 중심으로 정계가 구성되었거니와 그 핵심에 안동 김문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같은 안동 김씨에다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김희명과 김병연이 서로의 내력에 대해 소문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김삿갓’이라는 이름값에다 같은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까지 더해져 김희명이 김병연을 환대할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비록 가정이기는 하나 이 시의 작자로 표기된 ‘김립’ 또한 김병연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병연은 1854~1855년 사이에 여러 달 동안 영광에 머무른 것이 된다. 김병연의 방랑에 대한 기록은 모두 구전에 의한 것일 뿐 문헌 기록이 매우 소략한 형편인데 이 시를 통해 호남에서의 구체적인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수옹에게 준 시와 영광에서 지은 것 이외에 호남에서의 행적을 알려주는 또 다른 작품이 ⑤이다. “옥과의 대환정 운으로 짓다”라는 제목과 운자를 고려하면 이 시는 전남 玉果(谷城의 옛이름)에 있는 大還亭에 걸린 제영시를 차운한 것이 된다.

전남 곡성군 겸면 칠봉리에 있는 大還亭은 沈採鎮(1738~1808)<sup>17)</sup>이 1769년(영조45) 七峯山 아래에 세워 다섯 아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심채진의 둘째 아들 沈斗永(1767~1827)<sup>18)</sup>은 湖南七高朋의 한 사람으로서 시를 잘 짓기로 유명하였다.<sup>19)</sup> 『곡성군지』에 실린 심두영의 대환정 제영시는 다음과 같다.

痴叟生涯無地居	어리석은 늙은이 한평생 정주할 곳 없이
十年行讀晦翁書	십 년 동안 돌아다니며 주자의 글을 읽었네.
歸來山有三間屋	돌아온 산 아래 세 칸짜리 집이 있어
閑坐磯臨一帶漁	한가로이 시내에 앉아 어촌(고기잡이) 일대를 굽어보네.
蒼翠盈庭詩債負	푸른빛이 뜰에 가득하여 시 짓기 부담되고
金丹有契世情疎	금단과 인연 맺으니 속세의 정 적어지네.
千二百年碁一局	천이백 년이 바둑 한판과 같은데
樂生長老太平於	태평시절이라 삶을 즐기며 길이 늘어가는구나. <sup>20)</sup>

심두영은 1819년에 부친이 세운 정자를 대환정이라 명명하고 제영을

17) 丁鳳泰, 『谷城郡誌·學行·沈採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谷城: 嘿容室, 1918: “字啓心, 號枕溪, 青松人. 氣質溫良, 行義超凡. 養親 諸節極盡. 其誠耽玩經史, 研窮性理, 謝絕浮華. 仍築亭于七峯下, 教五子, 沐薰從學者多, 士林景仰.”; 『青松沈氏族譜』: “字啓先, 英祖戊午生. 有學行, 純祖戊辰十月二十五日卒.”

18) 丁鳳泰, 『谷城郡誌·學行·沈斗永』: “字七之, 號禾橋, 青松人. 資稟絕異, 色夷氣清, 金精玉潤. 四歲始入學, 授以史書, 領解如神, 開口詠物, 輒驚人. 及長力學, 能文章. 遊於京都, 公卿大夫士, 慕義推進, 多以贈詩. 所著有「飛鷺」「毗盧」詩, 諸篇行于世.”; 李秉延, 『朝鮮實輿勝覽·谷城·文苑·沈斗永』(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38: “字七之, 号禾橋, 青松人. 節義瑤后, 進士. 資稟異凡, 四歲受學, 一見通曉. 咏物輒驚, 不甚教督以文章名擅京鄉. 其「歸鷺詩」「毗盧詩」, 入於「國風」及中華詩選, 有詩集.”; 『青松沈氏族譜』: “字七之, 號禾橋, 英祖丁亥一七六七年生. 一八一九年己卯進士, 一八二七年丁亥正月二十三日卒. 有詩名.”

19) 『大東詩選』(권8)에 심두영의 시 1편이 실려 있다. 「聞尹鶴山漂海作」: “海風消息鶴山流, 津吏相傳郡國愁. 潦倒文章七耋老, 蒼茫天地一孤舟. 夜深明月波中在, 年少高官地上游. 奉命詞臣應不死, 然去泊岳陽樓.”

20) 『조선환여승람·곡성·누정』에는 “大還亭: 在玉果南十里七峯下, 沈採鎮建.”이라고 하고 심두영의 제영을 수록하였는데 ‘一帶漁’가 ‘一隊魚’로 되어 있다.

지는 것으로 보인다.<sup>21)</sup> 현재 대한정에는 金履陽(1755~1845), 李載毅(1772~1839), 金鼎均(1782~1847), 李晩永, 沈魯綜 등의 차운시가 걸려 있다.<sup>22)</sup> 『문학사상』에 수록된 김립의 ⑤ 또한 심두영의 시를 차운한 것이다.

#### 옥과의 대한정 운으로 짓다

七峯村畔一亭居	(정자의 주인은) 칠봉마을 자락의 한 정자에 머물며
晚契金丹讀古書	만년에 금단과 인연 맺고 옛글을 읽었다네.
野勢東開通大路	들판의 형세는 동쪽으로 열려 큰길과 통하고
江心北坵供開漁	강의 중심은 북쪽으로 터져 고기잡이를 제공하네.
後蒙黃卷誠休情	후손 아이들은 책 읽기를 부디 게을리 마라!
先世青氈本不疎	앞선 세대의 푸른 이불은 본디 소략하지 않으니.
遠客登臨同嘯咏	멀리서 온 나그네도 (정자에) 올라 함께 읊조리니
況今生老太平於	하물며 이제 태평시절에 태어나 늙어감에랴!

평성 魚韻으로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수련은 심두영의 원운시에 보이는 “金丹有契世情疎”에서 가져온 것이다. ‘金丹’은 道家의 方士들이 불로장생을 위해 金石을 鍛鍊하여 만든 丹藥<sup>23)</sup>이다. 정자의 이름인 ‘대한’ 또

21) 丁鳳泰, 『谷城郡誌·亭樓·大還亭』: “在玉果東十里, 七峯村下. 處士沈採鎮所構, 公第二子進士永橋斗峯, 始揭亭號.” ‘永’은 ‘禾’의 잘못이다. 한편 대한정에는 두 개의 시판에 심두영의 원운시가 실려 있는데 그중 하나에 “嘉慶二十四年三月”(1819년, 순조19)이라 되어 있다.

22) “高秀七峯是子居, 沈看千卷古人書. 萱幃養旨勤耕鑿, 棟崇謙和且獵漁. 文學相隨堂宇靜, 形容初創竹松疎. 生斯長老宜斯樂, 豈獨考繁在澗於(淵泉 金履陽); “七峯山下上仁居, 翁築溪亭教子書. 繞屋青山崗者趣, 觸軒流水坐而漁. 松風四面襟期爽, 蓼月三更世念疎. 難兄難弟誠孝著, 文章餘力藝遊於(判書 金鼎均); “玉山之下是崗居, 床有仙翁一部書. 南土風煙豁世界, 平生名姓混漁樵. 君將去吳三盃可, 吾且悠然萬念疎. 交遊京洛無知己, 遙想清儀鼻白於(溪陽 李晩永)” 운자를 고려할 때 ‘漁樵’는 ‘樵漁’가 옳다; “縹緲棟樑近水居, 半閒明月半閒書. 長風入戶宜看讀, 暮雨添流供釣漁. 寓意溪山名利謝, 近床松竹本心疎. 臨軒更問參同契, 早晚歸來共老於(文山 李載毅); “金丹歲晚故山居, 白屋青氈掃架書. 檻外古松下鶴, 籬前流水水中漁. 一翁五物忘憂樂, 九遇三旬任放疎. 待到園花春萬遍, 大還名義無窮於(後孫 魯綜)”

23) 晋 葛洪, 『抱樸子·金丹』: “夫金丹之爲物, 燒之愈久, 變化愈妙; 黃金入火, 百鍊不消, 理之, 畢天不朽. 服此二物, 鍊人身體, 故能令人不老不死.”

한 금단을 가리킨다. 大還丹은 '九還金丹'이라고도 하는 道家 최고의 外丹인데 비밀리에 제조법이 전승되었다고 한다.<sup>24)</sup>

함련은 정자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을 묘사한 것이다. 들판의 동쪽으로 큰 길이 지나가고 섬진강 북쪽으로 고깃배가 보인다. 경련의 '黃卷'은 黃蘗의 즙으로 염색한 노란 종이를 엮은 책을 가리킨다.<sup>25)</sup> 聖賢의 말씀이 전부 담겨 있어 이것을 빼고는 달리 배울 것이 없다.<sup>26)</sup> 한편 道家와 佛家에서 누런 종이에 글을 썼으므로 황권은 도가와 불가의 경전을 가리키기도 한다. 앞서 나온 '金丹'에 맞추려고 선택한 시어이다. 靑氈은 조상의 귀한 유물을 가리킨다.<sup>27)</sup> 배움의 대상인 前人의 훌륭한 '黃'과 '靑'으로 짝지어 표현하였다. 경련은 심두영의 후손에게 당부하는 말이라 할 수 있고 미련은 심두영의 원운시에 보이는 "樂生長老太平於"을 접화한 것이다.

김립이 언제 대환정을 찾아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遠客', '老'라는 표현을 통해서 중년 이후의 작품이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앞서 김희명에게 준 시가 김병연의 나이 48세 때 지은 것인데, 이 시의 창작 시기 또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①, ②, ③ 세 편은 김병연이 睡翁 李叟'라는 이의 거처에 머물면서 지어준 것이다. 문제는 수옹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睡翁'은 호일 것이고 '李叟'는 이씨 성을 가진 노인이라는 뜻이다. 번역문에는 '李叟'라고 잘못되어 있어서 사람 이름으로 혼동할 수 있는데 <사진2>를 보면

24) 北宋 張君房 編, 『雲笈七籤』 권68: "大還丹, 皆因師師相承傳之口訣, 靈文藏於洞府, 金簡祕在仙都."

25) 晉 葛洪, 『抱樸子·疾謬』: "雜碎故事, 蓋是窮巷諸生、章句之士, 吟詠而向枯簡, 匍匐以守黃卷者所宜識." 楊明照 校箋: "古人寫書用紙, 以黃蘗汁染之防蠹, 故稱書爲黃卷."

26) 南朝 宋 劉義慶, 『世說新語·賞譽』中卷下: "陶字季雅, 吳郡錢塘人, 褚先生後也. 陶聰惠絕倫, 年三十, 作「鷗鳥」「水磴」二賦. 宛陵嚴仲弼見而奇之曰: '褚先生復出矣!' 弱不好弄, 清談閑默, 以「墳」「典」自娛. 語所親曰: '聖賢備在黃卷中, 舍此何求?' 州郡辟不就."

27) 『太平御覽·服用部十·氈』 권708: "王子敬在齋中臥, 偷人取物, 一室之內畧盡. 子敬臥而不動, 偷遂登榻, 欲有所覓. 子敬因呼曰: '石染青氈, 是我家舊物, 可特置否?' 於是羣偷置物驚走."



수도 있지만 두 개의 닳은꼴 정자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sup>28)</sup> 앞서 살핀 ⑫와 ⑮를 통해 김병연이 영광과 곡성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는데, 영광은 호남의 서북쪽에 있고 곡성은 호남의 내륙에 있다. 남쪽으로 내려온 후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는 ②의 내용을 고려하면 김병연이 영광에 머물다가 곡성으로 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쌍정’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호남의 내륙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곡성과 멀지 않은 곳이었으리라 추정된다. 곡성은 김병연이 만년을 보내다 졸한 곳으로 알려진 전남 화순군 동북면과도 가까운 곳이다. 곡성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아래에 화순이 있다. 따라서 김병연의 자취가 확인되는 대환정, 동북, 쌍정 등이 서로 근접한 거리에 있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sup>29)</sup>

이러한 가정을 수용한다면 『문학사상』에 수록된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①, ②, ⑬ 이외에도 수용과 관련된 작품들이 더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⑧과 ⑨가 그러한데 해당 내용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⑧若使貴妃他日奉  만약 양귀비더러 다른 날 받들게 한다면  
睡翁應作壯元朋  수옹이 마땅히 장원의 벗이 되리라.

⑨幸有溪邊老  다행히 시냇가에 노인이 있어  
題詩問淺深  시를 지어 깊고 얇음을 물어보네.

28) ②에 보이는 “雪月雙亭”은 ‘눈처럼 밝은 달이 비추는 쌍정’일 수도 있고 곡성에 있는 雪巖亭과 月巖亭처럼 ‘雪’과 ‘月’이 들어가는 두 개의 정자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29) 동북면에서 서남쪽으로 약 36km 떨어진 화순군 도곡면에 쌍정마을(현재 행정명은 쌍옥리인데 쌍정마을과 옥계마을을 합친 이름이다)이 있다. 수옹은 정자 근처의 개울을 ‘東湖’라 불렀는데, 쌍정마을에도 지식천의 지류가 흐르며 쌍옥지라는 저수지가 있기도 하다. 동북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북쪽으로 대환정, 남쪽으로 쌍정마을이 비슷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⑧은 벼루를 읊은 영물시인데, '수옹'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⑨에는 '溪邊老'라는 표현이 보인다. 김립이 수옹에게 준 시인 ⑬에 "다른 날 만약 서울의 벗들을 만난다면 선생은 뜻을 잃고 시냇가에서 늙어가겠지(他時若見長安友, 失志先生老澗壑)"라 하였다. 이를 통해 ⑨에서 말한 '시냇가의 노인'이 수옹임을 알 수 있다. 즉 『문학사상』에 수록된 김립의 시 12편 가운데 다섯 편이 수옹에게 준 작품인 셈이다. 여기에 영광과 곡성에서 지은 시를 포함하면 최소 7편이 호남을 배경으로 한 것이 된다. 나머지 5편은 창작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없으나 동일한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을 고려하면 김병연이 40대 후반에 호남을 유랑하면서 지은 시가 채록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전국 각지에 김립의 행적이 구전되지만 창작 배경이 분명한 작품 가운데 호남에서 창작된 것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한다. 또한 최근에 발굴된 김병연의 작품들도 모두 호남에서 발굴되었거나 호남과 관계가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병연이 만년을 호남에서 보냈으며, 그 명성 때문에 지역 차원의 구전과 채록이 이루어졌으리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sup>30)</sup>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문학사상』에 수록된 작품들은 김병연이 40대 후반에 호남 일대에 머물며 창작한 것을 채록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 Ⅲ. 기존 작품과의 비교로 본 영물시의 특징

『문학사상』에 수록된 김립의 시 12편 가운데 수옹과의 교류에서 비롯된 것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4편의 영물시이다. 잘 알려진 대로 김립은 사물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과 기발한 표현으로 영물시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이는 이응수가 김립의 시를 모으면서

30) 이에 대해서는 양동식, 「전남 지역과 김병연 문학의 관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6, 한국고시가문화회, 2005, pp.197-231 참조.

詠物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문학사상』에는 눈, 벼루, 화로, 감주(단술)에 대한 영물시가 실려 있는데 눈, 벼루, 화로는 기존에 소개된 김립의 시에도 등장하는 것이어서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먼저 눈을 소재로 한 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응수가 편찬한 시집에는 눈을 소재로 한 김립의 영물시가 세 편, 雪景을 소재로 한 시가 두 편 있다. 이 가운데 사물에 대한 참신한 시각과 기발한 표현을 보인 것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sup>31)</sup>

제목	㉠ 눈(雪)	㉡ 눈 내린 풍경(雪景)
출전	이응수 편, 『대중보판 김립시집』, 1941, p.107.	이응수 편, 『김립시집』, 1939, pp.66~67.
원문	하늘 임금 죽었나. 땅의 임금 죽었나? 푸른 산의 온 나무들이 모두 흰옷을 입었네.	송이송이 날리는 모양은 봄철의 나비 같고 맑을 때 나는 소리는 유월의 개구리 같네.
및	다음 날 해님더러 조문토록 한다면 집집마다 처마 끝에 눈물 똑똑 떨어지겠네.	추위가 물러나지 않으면 눈 이야기 많아지고 취하면 혹 머물까 싶어 거둬 술잔을 권하네.
번역	天皇崩乎人皇崩? 萬樹青山皆被服. 明日若使陽來吊, 家家簷前淚瀟瀟.	飛來片片三春蝶. 踏去聲聲六月蛙. 寒將不去多言雪, 醉或以留更進盃.

㉠은 흰 눈에 뒤덮인 산과 나무의 모습을 喪服에 비유하여 표현의 참신함을 의도하였다. 눈이 녹는 현상을 눈물에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申儀華에 시에 이러한 표현이 보이므로<sup>32)</sup> 과거에 없던 기발한 표현

31) 눈을 소재로 삼은 나머지 시들은 다음과 같다. 金笠, 「雪」, 『김립시집』(이응수 편), pp.64-65: “蕭蕭密密又霏霏, 故向斜風滿襲衣. 潤邊獨鶴愁無語, 木末寒鴉凍不飛. 從見江山颺白影, 誰知天地弄玄機? 強近店婆因問酒, 緬然醉臥却忘歸.”; 金笠, 「消雪景」, 같은 책, pp.65-66: “送月開簾小碧峰, 滿庭疑是玉人逢. 冥魂灑入孤江釣, 冷意添牽暮寺鍾. 却言於梅花清我興, 能令葑屋素其封. 個邊頗有精神竹, 助合詩腸動活龍.”; 金笠, 「雪景」, 같은 책, p.67: “雪日常多晴日或, 前山旣白後山亦. 推窓四面琉璃壁, 分付家僮故掃莫.”; 金笠, 「雪」, 같은 책, pp.67-68: “白屑誰飾亂洒天, 雙眸忽爽霽樓前. 練舖萬壑光斜月, 玉削千峰影透烟. 訪隱人應隨剡棹, 懷兄吾易坐講筵. 文章大手如逢此, 寫景高吟到百篇.”

이라 보기는 어렵다.

㉠ 또한 눈의 특징을 형상화한 칠언고시이다. 1구는 눈이 내리는 모양을, 2구는 눈 밟는 소리를 직유로 표현하였다. 눈송이를 나비로 표현하는 것은 흔하지만<sup>32)</sup> 뾰드득거리는 소리를 개구리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다. 3·4구는 자연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 추위가 쉬 물러나지 않으면 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말들이 많아지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술친구를 붙잡아 두기 위해 술을 한 잔 더 권하여 취하게 만들려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묘미를 의도한 표현이지만 1·2구와 의경이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으며 4구는 '눈'이라는 소재와 큰 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한편, 『문학사상』에 수록된 눈을 소재로 한 영물시인 〈吟雪〉은 다음과 같다.

#### 눈을 읊다

於潔於寒獨得宗	깨끗함과 차가움에 있어서 홀로 으뜸인데
却將三白報玄冬	문득 세 차례 희게 내려 겨울임을 알리네.
加霜有迹歸林虎	서리 덮인 발자국 남긴 것은 숲으로 돌아간 호랑이요
失雨無功蟄澤龍	비를 잃어 공이 없는 것은 연못에 웅크린 용이구나.
竹更精神晴後見	갠 뒤에 보니 대나무는 정신이 더욱 새롭고
梅相信息落初逢	떨어질 때 보니 매화는 서로 소식을 전하네.
皇天自念貧家勢	하늘은 스스로 가난한 집의 형세를 고려하여
一樣千村盡素封	은 마을을 한 가지 모양으로 하얗게 뒤덮었네.

평성 冬韻으로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겨울에 내리는 눈을 소재로

32) 洪萬宗, 『小華詩評』: “申儀華, 春沼之子, 號四雅堂. 才思艷麗, 工於詞賦, 嘗作「雪賦」, 膾炙人口. 二十六而夭, 其「雪後吟」詩曰: ‘屋後林鴉凍不飛, 晚來瓊屑壓松扉. 應知昨夜山靈死, 多少青峯盡白衣.’”

33) 李穡, 『牧隱詩藁』(한국문집총간4) 권9, 「詠蝶」, p.65: “雪翅翩然箇箇同, 弄芳成隊舞東風.”

삼았기에 일부러 '冬'을 운자로 이용하였다. '三白'은 눈이 세 번 내리는 것이다. 선달이나 정월에 눈이 세 번 내리면 이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라 여겼다.<sup>34)</sup> 보리 이삭이 팽 때 메뚜기가 갇아먹으면 농사를 망치기 마련인데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메뚜기 알이 땅속 깊이 들어가게 되어 많이 부화하지 못하므로 피해가 적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35)</sup> 겨울을 상징하는 색이 검은색이므로 '玄冬'이라 하는데<sup>36)</sup> 흰 눈이 검은 겨울을 알린다는 모순어법을 이용하였다.

호랑이가 숲으로 돌아간 발자국에 서리가 서려 있고 연못이 얼어버려 비를 내리지 못하게 된 용이 칩거한다고 하였다. 눈이 많이 내린 까닭에 짐승들이 숨어버려 호랑이 또한 먹이를 구하지 못해 숲 깊숙이 들어가 배고픔을 견딜 수밖에 없다. 이를 雪上加霜인 양 표현한 것이다. 비를 관장하는 용 또한 겨울을 맞이하여 할 일을 잃고 연못 깊숙이 칩거한다. 이상은 수련에 보이는 '寒'의 뜻을 표현한 것이다.

경련은 수련의 '潔'을 이은 것이다. 눈이 갠 뒤 대나무는 더욱 푸름을 자랑한다. 그 정신이 참으로 고결하다. 눈 때문에 꽃잎을 떨군 매화는 봄이 멀지 않다는 소식을 전한다. 겨울을 견뎌야만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법이니 홀로 추위를 견디며 제일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매화 또한 고결하기 그지없다.

큰 눈이 세 번 내리면 풍년이 든다지만 이리저리 빼앗기고 나면 농민들의 삶은 여전히 각박하다. 작자는 이에 대한 동정과 연민으로 시를 끝맺는다. 어떤 집은 띠요 어떤 집은 기와이니 형편에 따라 지붕 모양새가 다르다. 그러나 눈은 지붕의 모양을 가리지 않는다. '素封'은 봉록이 없는데

34) 미상, 『全唐詩』 권880, 「占年」: “要見麥, 見三白. 正月三白, 田公笑赫赫.”; 金宗直, 『佔畢齋集』(한국문집총간12) 권21, 「雪後, 發古阜向興德」, p.373: “臘前已是饒三白, 想聽明年「擊壤謠」.”

35) 宋 蘇軾, 『蘇軾集』 권6, 「雪後書北臺壁」: “遺蝗入地應千尺, 宿麥連雲有幾家?” 王十朋注: “蝗遺子於地, 若雪深一尺, 則入地一丈.” 明 徐有貞, 『武功集』 권2, 「試三農望雪賦」: “遺蝗伏藏, 年穀其登兮; 東作有祥, 力我畊兮.”

36) 漢 班固, 『漢書·揚雄傳上』 권87상: “於是玄冬季月, 天地隆烈.” 顏師古注: “北方色黑, 故曰玄冬.”

도 부자인 사람을 가리킨다.<sup>37)</sup> 눈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세상을 공평하게 덮어준다. 하느님이 가난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눈을 내리는 것이다.

하늘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야 하는 임금과 벼슬아치들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위정자들은 눈을 공평하게 내리는 하늘의 진의를 알고 있을까? 이 시의 속뜻은 아마도 이러한 것일 것이다. 파격을 통한 조롱과 해학은 아니지만 세태에 대한 점잖은 풍자가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벼루를 소재로 한 영물시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응수가 소개한 것과 『문학사상』에 수록된 것을 나란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벼루(硯)	㉡벼루를 읊다(吟硯),
출전	이응수 편, 『대중보관 김립시집』, 1941, pp.87-88.	『문학사상』 1983.2, p.251.
원문	갈립을 당하여 뱃속에 (먹물) 묻혀있고 이마엔 오목한 연못 있는데 평범한 돌보다 뛰어나 기이하게도 얹아지지 않네. 질게 연마하여 매년 공교롭고 정밀함을 만나고 총애로 증용되어 항상 뛰어난 흥취를 좇는다.	다른 산의 품질 좋은 돌이라 값이 비싼데 네 벗들 가운데 전일한 능력이 최고로구나. 보배로운 갈개에 봉황을 새겼으니 뛰어난 장인이 잔뜩 솜씨를 부렸고 작은 연못에서 물고기가 뛰어나온 것 같으니 (벼루) 만든 중이 독실했다 보다.
및	닥나무 노인의 펼친 얼굴 점차 변함을 알겠고 붓 어른의 불꽃 혀가 자주 적서짐을 본다.	발에 흥년이 없으니 풍년의 노래로 답하고 장수하는 법이 있나니 둔해야만 수명이 늘어난다네.
번역	원래 네 친구가 서로 똑같이 힘써야만 하느니 공부방에 등글게 모인 것이 그림자가 뒤따르는 것과 비슷하다. 腹埋受磨額凹池, 拔乎凡品不磷奇. 濃研每值工精日, 寵任常從興逸時. 楮老數容知漸變, 毛公炎舌見頻滋. 元來四友相須力, 圓會文房似景隨.	만약 양귀비더러 다른 날 받들게 한다면 수용이 마땅히 장원의 벗이 되리라. 他山品石價高騰, 四友叢中最一能. 寶甞鳳鏤偏巧匠, 小池魚出驚工僧. 田無惡歲豐謠答, 道有長生鈍壽增. 若使貴妃他日奉, 睡翁應作壯元朋.

37) 漢 司馬遷, 『史記·貨殖列傳』: “今有無秩祿之奉, 爵邑之入, 而樂與之比者, 命曰‘素封.’” 張守節 正義: “言不仕之人自有田園收養之給, 其利比於封君, 故曰‘素封也.’”

㉠은 평성 支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초간본 『김립 시집』에 ‘逸材’로 되어 있는 것을 증보판에서 운을 맞추어 ‘逸時’로 고쳤다. 수련은 벼루의 생김새를 표현한 것이다. 먹에 갈려 벼루의 배는 구덩이처럼 조금씩 움푹해진다. 벼루의 머리 부분에는 墨汁을 모으려고 오목하게 만든 墨池가 있다. 아무리 갈려도 벼루가 얇아지지 않는다는 표현은 “갈아도 얇아지지 않는다”며 不善에 물들지 않는 경지를 칭송한 공자의 말을 用事한 것이다.<sup>38)</sup> 미련은 문방사우 모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서로 힘을 합쳐야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기에 등글게, 즉 평등하게 모였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벼루의 생김새와 속성을 두루 표현하면서 용사까지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다만 벼루가 쓸모 있는 것은 종이, 붓, 먹의 다른 벗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범한 내용으로 마무리한 것이나 ‘敷容’, ‘炎舌’ 등의 생경한 표현을 쓴 것은 단점으로 보인다.

㉡은 평성 蒸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구절마다 용사가 쓰여 작자의 해박함이 잘 드러난다. 수련은 他山之石을 용사한 것이다.<sup>39)</sup> ‘一能’은 專一한 능력이라는 뜻이다.<sup>40)</sup> 글을 쓰려면 벼루만 있어서는 안 된다. 문방사우가 제각각 一能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최고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벼루이다. 왜냐하면 종이, 붓, 먹은 쉬 닳아서 자주 바뀌야 하나 벼루는 종신토록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sup>41)</sup>

함련은 물고기 모양의 벼루나 물고기 문양이 새겨진 벼루를 묘사한 구절이다. ‘魚’와 ‘餘’는 발음이 같아서 물고기 문양은 ‘富貴有餘’를 가리킨다. 물고기 두 마리는 다정한 부부를 상징하며 여기에 여러 마리 새끼 물고기

38) 『論語·陽貨』: “不日堅乎, 磨而不磷; 不日白乎, 涅而不緇.”

39) 『詩·小雅·鶴鳴』: “他山之石, 可以爲錯…他山之石, 可以攻玉.”

40) 『呂氏春秋·知度』: “正性是喜, 羣衆不周, 而務成一能.” 高誘注: “一能, 專一之能.”; 漢 王符 『潛夫論·實貢』: “一能之士, 各貢所長.”

41) 宋 蘇易簡 『文房四譜』: “四寶硯爲首, 筆墨兼紙, 皆可隨時收索, 可與終身俱者, 惟硯而已.”

를 더하면 '多子孫'이 된다. 물 밖으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는 『詩·大雅·旱麓』의 “鳶飛戾天，漁躍于淵”과 이를 인용한 『중용』의 의미, 즉 자연의 이치를 상징한다. 한편으로는 물고기가 벼루가 된 전설을 용사한 것이기도 하다.<sup>42)</sup>

筆耕이나硯田은 글 짓는 것을 농사에 비유한 말이다. 붓으로 일구는 밭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흉년이 들지 않는데, 이 구절은 唐庚의 시를 용사한 것이다.<sup>43)</sup> 붓, 먹, 벼루 가운데 벼루가 가장 오래가는 까닭은 둔하고 움직임이 적어서이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니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養生의 비법이다.<sup>44)</sup> 이 구절 또한 당경의 글에서 가져온 것이어서 용사 또한 대우를 갖추었다.

미륵은 이백이 당 현종에게 「淸平調」를 지어 바칠 때 고력사가 이백의 신발을 받들고 양귀비가 벼루를 받들었다는 고사를 활용한 것이다. 당대의 기록에는 환관이 먹을 갈아 붓을 적서 바쳤다고만 되어 있고<sup>45)</sup> 양귀비가 벼루를 받들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sup>46)</sup>

㉠에 비하면 용사를 많이 사용한 것이 ㉡의 주요 특징이다. 수옹의 글재

42) 南朝 宋 劉敞叔, 『異苑』 권7: “ 蔣道支於水側見一浮查, 取爲研, 制形象魚. 有道家符識及紙, 皆內魚研中. 常以自隨, 二十餘年, 忽失之, 夢人云: ‘吾暫遊湘水, 過湘君廟, 爲二妃所留; 今復還, 可於水際見尋也.’ 道支詰旦至水側, 見罾者得一鯉魚, 買剖之, 得先時符識及紙, 方悟是所夢人棄之. 俄而雷雨, 屋上有五色氣, 直上入雲. 後人有過湘君廟, 見此魚研在二妃側.”

43) 北宋 唐庚, 『後村詩話』(宋 劉克莊 編) 권2, 「次白頭」: “硯田無惡歲, 酒國有長春.”

44) 北宋 唐庚, 『古文眞寶·後集』 권10, 「家藏古硯銘」: “硯與筆墨, 蓋氣類也. 出處相近, 任用寵遇相近也, 獨壽天不相近也. 筆之壽以日計, 墨之壽以月計, 硯之壽以世計, 其故何也? 其爲體也, 筆最銳, 墨次之, 硯鈍者也, 豈非鈍者壽而銳者夭乎! 其爲用也, 筆最動, 墨次之, 硯靜者也, 豈非靜者壽而動者夭乎! 吾於是, 得養生焉, 以鈍爲體, 以靜爲用. 或曰: 壽夭, 數也, 非鈍銳, 動靜所制. 借今筆不銳不動, 吾知其不能與硯久遠矣. 雖然寧爲此, 勿爲彼也. 銘曰: 不能銳, 因以鈍爲體; 不能動, 因以靜爲用. 惟其然, 是以能永年.”

45) 唐 孟榮, 『本事詩』: “玄宗嘗因宮人行樂, 命高力士召李白吟詠其事…白領命, 請玄宗賜其無畏. 上許可, 遣二內臣掖扶之, 命研墨濡筆以授之, 又令二人張朱絲欄於其前.”

46) 宋 劉斧, 『青瑣高議』 권5: “曾得龍巾拭唾, 御手調羹, 力士抹靴, 貴妃捧硯; 天子門前尚容吾走馬, 華陰縣裏不許我騎驢?” 고사의 전승 내력에 대해서는 胡西奎, 「也談“貴妃捧硯”」, 『咬文嚼字』, 上海文艺出版有限公司, 2014.11, 참조.

주를 이백에 견주어 칭송을 한 것으로 마무리하였는데, 아마도 수옹 소유의 좋은 벼루를 소재로 삼아 지은 듯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립은 수옹과 시문으로 교류하여知己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옹의 환대를 받은 김립 입장에서는 수옹을 칭송하려는 창작 의도를 교묘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詩才를 뽐내고 상대를 칭송하려는 목적에 가장 적합한 수사법으로 용사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화로를 소재로 한 영물시를 비교하기로 한다. 이응수의 시집에는 두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제목	㉠화로(爐)	㉡화로(火爐)
출전	이응수 편, 『김립시집』, 1939, p.42.	이응수 편, 『대증보관 김립시집』, 1941, pp.176-177.
원문 및 번역	진귀하여 중시하는 청동을 나는 어디에 쓸까? 속이 비게 빚어내어 깊숙이 솟을 담을 수 있네. 연기도 쇠게 하고 굽기도 하여 사람에게 불의 덕을 칭송받는데 더위와 추위 갈마드는 이 세상에서 재가 된 마음을 탄식하네. (불) 돋우어 손에 든 술잔 데울 때 가장 훌륭한테 (화로) 끼고 앉으면 문 닫힌 곳 그늘에서 더욱 기이하네. 변방 땅에선 언 창에 이것을 많이들 높이 치니(만족하니) 그 값이 십 문이나 된다고 따지지 마라. 青洞珍視我何尋? 陶出愕然貯炭深. 熏炙於人稱火德, 炎涼斯世歎灰心. 挑來最妙携杯煖, 擁坐尤奇閉戶陰. 塞土凍恣多軒此, 莫論其價十文金.	머리는 호랑이나 표범 같고 입은 고래 같지만 자세히 보면 호랑이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라네. 머슴 시켜 불을 가득 피워 놓으면 호랑이 머리랑 고래도 삶아 먹을 수 있으리라. 頭似虎豹口似鯨, 詳看非虎亦非鯨. 若使雇人能盛火, 可煮虎頭可煮鯨.

47) 『左傳·僖五年』: “將尋師焉.”

㉠은 평성 侵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靑洞'은 '靑銅'의 譌記로 보인다. 귀한 금속인 청동의 값어치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화로라는 뜻이다. '楞然'은 텅 빈 모습이다. 속이 비어 있을수록 솟을 더 담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다. 그릇은 비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老子』의 논리를 暗用한 것<sup>48)</sup>인데, '楞然'이란 표현은 『장자』에도 보인다.<sup>49)</sup>

화로는 불을 보관할 수 있게 해주어 火德을 전해준다. 그런데 여름이 되거나 다 타버려 재만 남으면 사람들은 화로를 거들떠보지 않으니 절로 염량상태를 깨닫게 한다. 화로로 술잔을 데워 마시면 술맛이 좋아 많이 마시게 된다.<sup>50)</sup>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방문을 닫아야 하는데<sup>51)</sup> 방문을 닫으면 그늘이 생겨 쌀쌀하다. 이때 화로를 끼고 있으면 햇빛만큼 온기를 전해준다. 추위가 심한 북쪽 지방에서는 찬바람 때문에 얼기 쉬운 창가에 화로를 많이 둔다. 이렇듯 공이 많은 화로이니 값이 비싸다고 투덜대지 말라는 뜻이다.

㉡은 '鯨'을 내리 세 번 韻字로 부른 것에 應口輒對한 시이다.<sup>52)</sup> 화로의 몸뚱이는 호랑이 머리 같고 윗부분은 고래가 입을 벌린 것 같다. 덩치가 큰 화로이기에 이렇게 비유하였는데 여기에 술을 올려 물을 끓이면 호랑이 머리와 고래 고기도 삶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과장이긴 하지만 재치 있는 표현으로 強韻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화로의 모습만을 가지고 지은 ㉡보다는 내용이나 표현에서 ㉠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화로의 재질과 용도를 먼저 언급하고 이를 통해 그 값

48) 『老子』 제11장: "埴埴以爲器, 當其無有, 器之用."

49) 『莊子·逍遙遊』: "惠子謂莊子曰: '魏王貽我大瓠之種, 我樹之成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自舉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容. 非不呶然大也, 吾爲其無用而拊之.'"

50) 唐 白居易, 『全唐詩』 권443, 「花樓望雪命宴賦詩」: "素壁聯題分韻句, 紅爐巡飲暖寒杯." 宋 孔平仲, 『宋詩抄』 권16, 「集於昌齡之舍」: "就爐自溫杯, 覺此飲量闊."

51) 『太平御覽·學部五·勤學』 권611: "孫敬好學, 時欲寤寐, 懸頭至屋梁以自課. 常閉戶, 號爲閉戶先生."

52) 이용수 편, 『대중보판 김립시집』, pp.176-177: "이 시도 某處에서 鯨字 韻을連 겹혀 세 번 내려 붙이는 強韻에 答한 詩다. 火爐라는 句題에 고래 鯨字(鯨)는 무슨 可當치 않은 韻이나 金笠이는 이 強韻에도 應口輒對하였다."

어치를 증명하는 식으로 意境을 전개하여 설득력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문학사상』에 수록된 〈火爐〉는 다음과 같다.

화로

夕炭晨灰爾死生	너는 저녁에 숯이었다가 새벽에 재가 되어 살았다 가 죽는데
天寒擁坐最多情	날씨 추울 때 끼고 앉아 있으면 가장 다정하다.
中心爛熳叢花發	가운데는 밝게 빛나 무더기 꽃 핀 것 같고
外體團圓片月明	바깥 몸뚱이는 둥글어서 밝은 조각달 같다.
或煮香茶隣病席	간혹 향긋한 차를 끓이려고 병석 곁에 두고
更焚烟竹破愁城	다시 담뱃대에 불을 붙여 근심을 없앤다.
虞陶燧爨施功博	순의 질그릇과 수인씨의 부싯돌이 은혜를 널리 베풀어서
散入千家勢縱橫	모든 집에 흩어져 들어가 그 기세가 종횡으로 뻗었 구나. <sup>53)</sup>

평성 庚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수련에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숯과 화로의 덕을 칭송하였다. 함련은 화로의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미인을 가리키는 '花容月態'를 가져다가 工對를 의도하였다. 경련은 화로가 베푸는 공덕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질병과 근심을 없애는 직접적인 도구는 차와 담배이지만, 그것을 곁에 둘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화로이므로 화로의 공 또한 크다는 것이다.

미련은 용사를 활용한 구절이다. 舜이 河濱에서 질그릇을 구웠는데 비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sup>54)</sup> 수인씨는 인간에게 불씨를 처음으로 전해

53) 『문학사상』에는 '朝', '隣'으로 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진을 보면 '晨', '隣'으로 되어 있다. 문맥으로 보아 사진의 표기가 옳다. '博' 또한 '博'의 誤字로 보여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54) 『史記·五帝本紀』 권1: "舜耕歷山, 歷山之人皆讓畔; 漁雷澤, 雷澤上人皆讓居; 陶河濱, 河濱器皆不苦窳."

준 聖人이다.<sup>55)</sup> ‘施功’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다. 화로는 불씨를 담은 질그릇이니 질그릇과 불씨 두 가지를 만든 성인의 공이 가로세로, 즉 사방으로 널리 퍼졌다는 뜻이다. 작품의 의경이 화로가 지닌 공덕을 표현하려는 의도에 따라 정교하게 배치되었다.

앞서 살펴본 ㉠과 마찬가지로 묘사와 용사를 통해 화로의 공덕을 칭송했다는 점에서 내용과 표현의 유사성이 엿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은 겹치지 않는다. 김립의 영물시는 출처에 따라 일부 내용과 표현이 중복되는 경우가 보인다. 이는 아마도 전승 과정에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예컨대 요강을 소재로 한 김립의 영물시는 이용수가 수집한 것과 김병연의 후손인 김홍한이 소개한 것이 있는데, 일부 표현이 매우 유사하다.<sup>56)</sup> 이런 현상은 영물시뿐만 아니라 다른 갈래의 김립 작품에도 보인다. 이와 달리 『문학사상』에 수록된 화로 시는 기존에 알려진 김립의 화로 시와 비교할 때 세부 내용과 표현이 모두 다르다는 특징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김립 작품에 보이지 않는 감주(단술)를 소재로 한 〈謝主人設醴〉를 보기로 한다.

감주를 차려준 주인에게 사례하다

自古流傳醴酪名  
令人輒飲氣和平  
寧同淡淡傾玄味  
反勝潑潑壓濁聲  
薛鈇謾彈馮子曲  
楚鉗還愧穆生情  
病喉清爽偏多感  
枕下寒泉盡日鳴

예부터 감주의 명성이 전해오기를  
사람한테 마시게 하면 기운이 화평해진다네.  
어찌 냉수 마시는 싱거움과 같으랴?  
졸졸 막걸리 거르는 소리보다 낫구나.  
설 땅의 칼 태연히 튕기며 풍훤은 노래를 불렀고  
초나라 칼 쓴 이들은 목생의 인정에 부끄러웠지.  
병든 목구멍이 맑고 시원해져 느낌이 많은데  
베갯머리에 차가운 샘물이 온종일 우는구나.

55) 『韓非子·五蠹』: “有聖人作, 鑿燧取火, 以化腥臊, 而民悅之, 使王天下, 號之曰燧人氏.”

56) 이본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는 구분현, 「『藝林』에 수록된 金笠[김삿갓]의 漢詩」,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pp.121-164 참조.

평성 庚韻으로 압운하고 수구입운한 칠언율시이다. 귀한 손님을 맞이 하면 술상을 차리는 것이 예의이다. 집안에 술이 떨어진 것인지, 몸이 아파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는지, 금주령이 내린 것인지,<sup>57)</sup> 아니면 더위를 식히느라 일부러 그런 것인지<sup>58)</sup> 알 수 없으나 애주가인 김립이 술 대신에 감주를 대접받았던 모양이다. 이에 김립이 주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이 시를 지어준 듯하다.

수련의 醴酪은 감주를 가리킨다. 오래전에는 제사 때 올리는 귀한 음식이었다.<sup>59)</sup> 조선에서는 감주를 醴酒라고 불렀다. 보리를 물에 담가 불려 짝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햇볕에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물을 타고 온 체로 거른 후 시루에서 찌낸 밥을 넣고 보온해 발효시켜 만들었다.

함륜은 감주를 玄酒와 濁酒에 비교한 것이다. 현주는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물이고<sup>60)</sup> 濁酒는 막걸리다. 비록 술맛이 거의 없다 해도 무미한 물보다는 감주가 낫다는 뜻이다. 또한 감주는 막걸리보다 술기운이 약하지만 보온 상태를 거쳐 거르기 때문에 막걸리처럼 텁텁하지 않다.

경륜은 감주를 마시니 풍헌과 목생의 고사가 생각난다는 뜻이다. 풍헌은 맹상군의 식객이었다. 맹상군이 풍헌을 소홀히 대접하자 풍헌은 칼을 튕기며 노래를 불러 이를 원망하였고 이에 맹상군이 대접을 잘 해주었다. 맹상군의 식읍인 설 땅에 빛을 받으러 간 풍헌은 오히려 백성들의 빛문서

57) 영조는 즉위 때부터 금주령을 내렸는데 태묘의 제사에도 감주를 쓰게 하였으며, 사신들에게도 감주를 대접하였다. 『영조실록』 33년 6월 28일: “尙魯曰: ‘國中今方禁酒, 待客使之禮, 宜用醴酒, 而京中旣用醴, 則西路諸邑, 亦當如之矣.’ 上可之.”; 『영조실록』 40년 9월 23일: “順悌君妣, 疏請太廟用酒, 上曰: ‘醴亦酒也. 禁酒係國之興亡, 豈一二臣所敢請?’ 批責之.”

58) 정학유의 「농가월령가」 6월 조에서 “정자나무 그늘 밑에 坐次를 정한 후에 점심 그릇 열어 놓고 보리단술 먹저 먹세.”라고 하였듯이, 단술은 일하다가 쉬는 도중에 마시던 農酒이기도 했다.

59) 『禮記·祭義』: “以事天地山川社稷先古, 以爲醴酪齊盛, 於是乎取之, 敬之至也.” 孔穎達 疏: “祭祀諸神須醴酪齊盛之屬.”

60) 『禮記·禮運』: “故玄酒在室, 醴醞在戶.” 孔穎達 疏: “玄酒, 謂水也. 以其色黑, 謂之玄. 而太古無酒, 此水當酒所用, 故謂之玄酒.”

를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는 맹상군의 집에 없는 '義'를 사서 돌아왔다고 하였다. 맹상군은 풍훤이 제멋대로 군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으나 권세를 잃고 설 땅에 갔을 때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며 환영하자 풍훤을 인정하게 되었다.<sup>61)</sup> 김립 자신에게 단술을 대접한 주인을 맹상군이라 칭송한 것이다. 자신도 풍훤처럼 주인에게 뭔가로 보답해야 하는데 그저 시한 수밖에 건넬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楚나라 元王은 申公, 白生, 穆生을 인재라 여겨 잘 대우하였다. 술상을 차릴 때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항상 감주를 갖추어 대접하였다. 그런데 王戊가 즉위한 뒤로는 감주를 차려놓지 않았다. 이에 목생은 계속 머물다가는 죄를 입으리라 예감하고는 신공과 백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을 핑계로 떠나버렸다. 나중에 王戊가 포학해지자 신공과 백생은 간언을 하였고 그 때문에 죄수복을 입고 저자에서 절구질을 하는 신세가 되었다.<sup>62)</sup> 감주를 대접한 주인의 정성을 초나라 원왕의 은혜에 견준 것이다. 자신도 목생처럼 주인을 위해 재주를 바쳐야 하나 마땅히 보답할 바가 없어 부끄럽다고 하였다.

미련은 감주의 효능을 말한 것이다. 감주는 여름에만 찬물로 만들고 다

61) 『戰國策』: “門客馮諼爲孟嘗君收債於薛, 使吏召諸民當償者, 悉來合券. 券遍合, 起矯命以責賜諸民, 因燒其券, 民稱萬歲. 孟嘗君見馮諼歸, 問曰: ‘責畢收乎? 來何疾也?’ 曰: ‘收畢矣.’ ‘以何市而反?’ 馮諼曰: ‘君云“視吾家所寡有者”, 臣竊計, 君宮中積珍寶, 狗馬實外寶, 美人充下陳. 君家所寡有者以義耳! 竊以爲君市義.’ 孟嘗君曰: ‘市義柰何?’ 曰: ‘今君有區區之薛, 不拊愛子其民, 因而賈利之. 臣竊矯君命, 以責賜諸民, 因燒其券, 民稱萬歲. 乃臣所以爲君韋義也.’ 孟嘗君不說, 曰: ‘諾, 先生休矣.’ 一年後, 孟嘗君爲齊君所忌, 就國於薛, 未至百里, 民扶老携幼, 迎君道中. 孟嘗君顧謂馮諼: ‘先生所爲文市義者, 乃今日見之.’”

62) 『漢書·楚元王列傳』 권36: “初, 元王敬禮申公等, 穆生不耆酒, 元王每置酒, 常爲穆生設禮. 及王戊即位, 常設, 後忘設焉. 穆生退曰: ‘可以逝矣! 醴酒不設, 王之意怠, 不去, 楚人將鉗我於市.’ 稱疾臥. 申公、白生強起之曰: ‘獨不念先王之德與? 今王一旦失小禮, 何足至此!’ 穆生曰: ‘『易』稱“知幾其神乎! 幾者動之微, 吉凶之先見者也.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 先王之所以禮吾三人者, 爲道之存故也; 今而忽之, 是忘道也. 忘道之人, 胡可與久處! 豈爲區區之禮哉?’ 遂謝病去. 申公、白生獨留. 王戊稍淫暴, 二十年, 爲薄太后服私奸, 削東海、薛郡, 乃與吳通謀. 二人諫, 不聽, 胥靡之, 衣之赭衣, 使杵臼雅春於市.”

른 계절에는 미지근한 물로 만든다. 김립은 아마도 시원한 단술을 대접받았던 모양이다. 갈증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져 상쾌하기 그지없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시원함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과장을 사용한 것이다.

감주의 생김새, 냄새, 유래, 효능, 관련 진고 등을 두루 갖추어 표현하면서도 의경의 전개가 어색하지 않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주인에게 사례해야 한다는 창작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배갓머리에 찬 샘물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감주가 얼마나 달고 시원했는지 한참이 지나도록 뱃속이 시원하다는 뜻이다. 감주 한 잔을 얻어 마신 것을 마치 속세를 벗어나게 해준 공덕인 양 표현하였기에 고마움에 대한 칭송이 지나치다 하겠다. 그러나 표현이 노골적이지 않아 거슬리지 않는다. 영물시가 지녀야 할 요건을 두루 갖춘 동시에 창작의 의도 또한 잘 살려냈기에 작자의 詩才가 잘 발휘된 작품이라 하겠다.

#### IV. 결론

『문학사상』에 '金笠'의 작품이라 소개된 12편의 작품이 모두 한 사람의 손에서 나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한 '金笠'이라 표기된 이가 '김병연'이라는 확인한 증거 또한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징은 현전하는 김립 시 대부분에서 발견되는 문헌적 한계이다. 김립 연구의 수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자 비정의 오류가 최근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직접적 증거는 부재하지만 『문학사상』에 소개된 작품들은 김병연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작자를 '난고'라고 지칭한 시, 같은 안동 김씨 출신인 김희명과의 교유 과정에서 창작된 시, 김병연이 만년을 보낸 전남 화순과 가까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시, 김병연의 개성과 재주가 잘 드러나는 영물시 등이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가정을 수용한다면 『문학

사상』에 수록된 작품들을 통해 김병연의 만년 행적을 보다 자세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분명한 근거가 없는 만큼 이러한 추정이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편, 데김이나 언문풍월 같은 과거뿐만 아니라 정격의 근체시를 통해서도 김병연 문학의 개성과 가치를 찾아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학사상』 수록 작품들은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하였으나 『문학사상』에 수록된 다른 작품들은 작자 자신이 방랑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긍정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 또한 자유의지를 실현하려는 방편으로 방랑을 선택한 김병연의 작가의식과 비슷해 보인다. 『문학사상』 수록 작품의 작자를 김병연이라 볼 직접적인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이러한 특징 또한 참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방랑에 대한 작자의 의식이 잘 드러나는 〈絶句〉를 소개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壯觀江山客	강산을 (떠돌며) 장관을 (구경하는) 나그네라서
於公又大人	아 공이면서 대인이라네.
一生詩酒外	한평생 시와 술 이외에는
萬事不關身	모든 일에 관심 두지 않는 몸이라네.

평성 眞韻으로 압운한 오언절구이다. 63) '公'과 '大人'은 관직이 높거나 신분이 귀한 사람이다. 64) 천하의 모든 강산을 다니며 장관을 직접 구경하니 임금 바로 아래에서 세상일을 관장하는 고관대작과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작자 자신은 공이나 대인과 다르기도 하다. 평생을 시와 술로 보낼 뿐 나머지 일들은 일절 상관하지 않는다. 세속의 욕망을 의식적으로 포기해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의 주제라 할 수 있

63) '於'는 감탄사로 보인다. 『詩經·周頌·清廟』: "於穆清廟, 肅雝顯相."; 『史記·夏本紀』: "皋陶曰: '於! 慎其身脩.'"

64) 『易·乾』: "見龍在田, 利見大人."; 『春秋公羊傳』: "公, 爵名, 五等之首曰公; 其餘大國稱侯, 小國稱伯、子、男."

다. 이러한 주제가 김병연의 삶과 의식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參考 文獻〉

### 1. 원전

南晩星 譯, 「江山에 떠도는 샷갓을 혹이나 기억하시는지」, 『文學思想』 2월호, 文學思想社, 1983.

李應洙 編, 『大増補版 金笠詩集』, 漢城圖書株式會社, 1941.

李應洙 編註, 『詳解 金笠詩集』, 學藝社, 1939.

이응수 정리, 『정본 김삿갓 풍자시 전집』, 실천문화사, 2000.

### 2. 연구논저

구본현, 「『藝林』에 수록된 金笠(김삿갓)의 漢詩」, 『한국시가연구』 46, 한국시가학회, 2019.

시선 김삿갓 유적보존위원회, 『천재시인 김삿갓의 문학적 유산』, 강원도 영월군, 1992.

심경호, 「김삿갓 한시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문학논집』 51, 근역한문학회, 2018.

심경호, 「원전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동양한문학연구』 20, 동양한문학회, 2004.

심경호, 『김삿갓 한시』, 서정시학, 2018.

양동식, 「전남 지역과 김병연 문학의 관계」, 『한국시가문화연구』 16, 한국고시가문학회, 2005.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2.

정대규, 『김삿갓 연구』, 문학아카데미, 1990.

하정승, 「김삿갓의 挽詩類 작품에 나타난 죽음의 형상화와 미적 특질」, 『한문고전연구』 29,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 Abstract

### *A Study on Sino-Korean Poetry of Gim Rip Contained in Munhaksasang*

Gu Bon-hyeon<sup>\*</sup>

Difficulties in research on Gim Rip[金笠] also known as Gim Sat-gat[김삿갓] come from two main reasons. One is that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whether Gim is referring to Gim Byeong-yeon[金炳淵] or several poets of similar ag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are no documented records of Gim's life. Second is the authenticity of Gim's works. Since the works created before the name 'Gim rip' was talked about were misinformed as Gim rip's, the historical investigation must be made thoroughly.

Most of what is said to be Gim's works is based on the efforts of Li Eung-su[李應洙]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Li collected and organized Gim's poems and published three versions of Gim's anthology. Later, Gim's new works were discovered and introduced from time to time, and the most notable among them is Gim's 12 poems in *Muhaksasang*[文學思想] the February issue of 1983. The reason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we can find a few evidences indicating that the author named 'Gim Rip' is Gim Byeong-yeon. There is a poem indicated the author as 'Nan-go', the nickname of Gim Byeon-yeon. Poetry given to Gim Hoi-myeong[金會明], who was serving as a governor of Yeonggwang[靈光], shows that the author had known Gim Hoi-myeong before. Considering that Gim Hoi-myung and Gim Byeong-yeon are from Andong Gim family, the author of the poem can be considered Gim Byung-yeon.

Second, the works created in Yeonggwang and Gokseong[谷城] are included. These areas are close to Hwasun[和順] where Gim Byeong-yeon stayed for a while and died in 1863. Therefore, through the review on these poems, the traces of Gim's later years can be verified in more details.

Third, There are four Yeongmulsi[詠物詩] that can be compared with Gim's another

---

\* Associate Professor of Dongduk Women's University / mijor@dongduk.ac.kr

works that reveal Gim's poetic talent and individuality. Gim was famous for his Yeongmulsi which reveal new perspectives and novel expressions on surrounding things. This feature is also reflected in the Yeongmulsi in *Munhaksasang*

**【Key words】** Gim Rip[金笠], Gim Byeong-yeon[金炳淵], 김삿갓[Gim Sat-gat],  
*Munhaksasang*[文學思想], Honam[湖南], Yeongmulsi[詠物詩]

투고일 : 11월 16일, 심사완료일 : 12월 05일, 게재확정일 : 12월 17일

